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성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인들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 발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이라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도 창업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창업연구 분야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연구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적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들인 예비농업인들의 창업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들이 현재의 환경 하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고려할 때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들로서 개인적요인과 외부적요인으로 귀농지역적 요인, 정책적요인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내적 개인특성, 외부 환경요인, 정책적요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인 지역적요인, 정책적요인을 변수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령, 현재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야, 기업규모, 성별, 학력, 농촌융복합산업 유형, 근무경력 등 인구통계적 특성이 개인의 농업·농촌 관심도와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단간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핵심주제어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

1. 서론

농업의 농촌융복합산업화의 개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 등이 농업·농촌의 해결을 위해 1차산업인 농업에 2차산업인 농식품가공제조업, 3차산업인 체험 등 서비스업 을 융·복합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고용 등을 창출하는 전략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산업화는 1차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므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다각화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농촌 고령농 등의 인력을 활용하므로 고용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

래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농촌의 부족한 인력문제 해결과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농업의 농촌융복합산업화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관광·휴양을 융·복합화한 농촌융복합산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융복합산업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고 얼마 되지 않은 탓에 부실한 자료와 기술수준으로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농촌융복합산업화의 활

* pojken@naver.com

** ksh@hoseo.edu

성화 방안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농 사업가,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인, 기존 농업종사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의지의 발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상을 위주로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젊은 층에서는 농사가 아닌 농업화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근래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에서 농업 경영체의 대표가 젊은 CEO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도시에서의 취업난과, 경제적 불확실성, 밝은 농업비즈니스의 전망, 국가적 지원 정책이 30-40대를 농촌의 새로운 산업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농촌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도시의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농촌이 주는 자연환경과 삶의 여유로움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30대의 젊은층 또한 농촌으로 이주를 적극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이에 많은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의도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했다.

II. 연구 배경

2.1 개인적 특성

정철영(1999)은 농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영농승계, 건강관리, 노후대비 등을 언급하였다.

윤순덕 외(2005)는 농촌거주 경험, 지인거주 여부, 농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을 주장하였다. 창업의도는 예비창업자의 의지와 선택의 몫이며 선행연구를 통해보면 그들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창업자 개인적 특성은 개인마다 다양하며 창업 연구에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창업자 개인의 특성요인 가운데 2가지 요인을 주요하게 선택하여 개인적 특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귀농준비정도, 경험도를 선정하였고 농식품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2 외부적 요인

이희찬·김현(2006)은 농촌이주요인을 농촌기반요인, 농촌자연요인, 도시환경요인, 취업환경요인, 농촌경험요인으로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농촌기반요인과 취업환경요인들이 다른 요인들보다 농촌이주의사에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송미령·성주인(2006)은 귀농인의 귀농의사결정은 농촌을 찾는 요인으로 경제적 안정성·건강관리·자연환경 및 농촌에 대한 주관적인식이 나타났다. 귀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형용(1998)은 영농 경험 부족으로 인한 영농 실패를 최소화 한다면 영농 이주자가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방안으로 영농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다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섭(2009)은 상담이나 교육훈련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이 귀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장동현(2009)은 귀농정책, 정착 지원, 귀농자의 지역문제 개선, 소득기반확보, 귀농지원의 현실화, 농지구입배려 등과 같은 정책이 귀농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영우(2013)는 쾌적한 주변 환경, 의료시설, 편의시설, 교통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손능수·이재모(2012)는 이주지역 선택 요인을 쾌적한 자연환경, 영농여건, 토지가격 저렴, 재배작물 주산지, 연고지, 지인 소개 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요인으로 귀농인이 많은 곳, 귀농에 대한 지원, 생활여건 양호, 농외소득 기회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귀농 정책당국은 귀농 지역결정과 관련하여 귀농지역은 영농여건에 따라 주로 결정되는데 농지가격이 저렴하고 선택작목의 주산지일 경우 선호도가 높으며, 이들 영농조건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이 양호한 지역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반면, 귀농지역은 생활여건에 따라 주로 결정되는데 수도권 또는 광역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서 쾌적한 자연환경과 의료·복지시설 등 노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창현 외(2008)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거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생활비용, 건강측면, 풍요로운 여가생활, 도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농촌공간선택결정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생활의 환경적 특성 및 입지적 특성, 주거지 특성 등의 우선 순위로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상균(2012)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귀농 관련 정보의 제공, 산물 가격의 보장 및 판매망의 구축, 귀농

관련 교육 훈련, 귀농 정착 자금 지원을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송미령·성주인(2006)은 귀농지를 선택할 시 수도권 거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에 수도권에 거주했던 도시민들은 귀농지로 경기도를 제외한 타 사·도를 귀농지로 선택할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했던 도시민들은 귀농지를 이전 거주지와 동일한 광역시 또는 동일한 광권으로 귀농지를 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민들은 귀농지를 선택할 시에 본인의 고향 및 연고지와 관련 있는 경우 또는 오염이 적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귀농지를 결정하는 지역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 귀농시 자금 지원 여부,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적 여건,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주산지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유사성에 따라 정부정책 용인을 분류해 보면, 귀농 의사결정에 있어 작용하는 요인은 경제적 지원 요인과 교육적 요인, 그리고 행정적 지원 요인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지원 요인에는 농산물의 가격 보장, 귀농 정착 자금 지원, 귀농 소득 기반 확보, 농지 구입시 배려, 농산물의 판매망 구축 등이 해당된다. 둘째, 교육적 요인에는 귀농과 관련 교육 훈련과 정보의 제공, 전문가의 상담 등이 해당된다. 셋째, 행정적 요인에는 귀농과 관련된 정책 및 그에 따른 귀농 지원에 대한 현실화 및 행정 절차상의 간소화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귀농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귀농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취업의 기회, 산업의 구조, 귀농소득 및 고용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환경적 요인인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과 정책적 요인인 조세 부담 및 귀농 관련 교육 기회 등도 귀농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선행 연구를 통하여 귀농 의사결정요인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부정책요인, 귀농인의 도시배출요인, 귀농인의 농촌흡인요인 등을 알아보았다.

첫째, 귀농인에 대한 정부정책 요인은 귀농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과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행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귀농인의 도시배출요인은 경제적인 상태가 대부분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귀농인의 농촌흡인요인은 경제적 안정성과 건관리, 자연 환경, 농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귀농인의 귀농결정요인은 귀농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인 쾌적한 자연환경 및 도시와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압출요인, 농촌흡인요인, 정책적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도시압출 요인은 도시의 일자리부족, 도시에서의 사업실패, 직장퇴직, 도시의 고물가, 도시의 주택문제, 도시의 교통문제, 도시의 환경오염, 자녀 교육문제, 도시생활의 삭막함(인간관계 등)으로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농촌흡인 요인으로는 생태적인 삶 추구, 건강에 도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 연고지 또는 고향에서 살고 싶어서, 농촌에서의 자녀교육 희망, 주변의 권유, 농업전망에 대한 기대, 친환경 농업에 대한 희망, 영농승계로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는 정부에서 관련 정보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교육·훈련의 유용성, 농촌정착 지원, 영농활동 지원이 도움되었기 때문임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귀농·귀촌을 결정짓는데 도시압출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정책적 요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압출요인 중에서 가장 큰 압출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환경오염, 인간관계, 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흡인요인 중에서 쾌적한 자연환경, 건강에 도움이 가장 큰 의사결정요인으로 선정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귀농·귀촌 결정자들은 도시내에서의 삭막한 인간관계나 환경오염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농촌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착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은 귀농·귀촌 의사결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귀농자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외부지원세력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창업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과정이 이루어지며, 개인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창업의도에 영향을 받는다(Greenberger & Sexton,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외부적 요인 가운데 3가지 요인을 주요하게 선택하여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외부적 요인으로 귀농지역적 요인, 정책 지원, 대안시장을 선정하였고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3 정책적 요인

창업지원정책은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교육,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특성 발굴, 전문가

와의 네트워크,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 준비공간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Gartner & Vesper, 1994).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장 대어나 자금지원, 창업교육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초기 창업자들에게 제공하여 창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창업단계에서 창업자에게 정보와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불확실한 창업을 선명하게 해주는 제도가 창업지원제도이다.

사회적인 제도로서 창업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이 아닌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창업역량을 증진시켜 창업을 촉진시키며, 창업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과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선, 2015). 국내 주요 창업지원내용으로는 자금지원, 세제상의 지원, 상담 용역 및 정보의 제공, 절차의 간소화 등이 있으며 특히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정책으로서 창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 준비단계, 실행단계, 지속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남정인, 2013). 임교순(2013)은 잠재적 창업자와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세지원 및 금융 지원제도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andberg & Hoffer(1987)는 창업 전 교육이 창업의도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재석·이상명(2015)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창업가정신을 촉진시킨다는 발견을 바탕으로 창업가 기질은 타고난다기 보다는 창업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윤준 외(2013)의 연구에서도 창업자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창업지원제도가 농식품 분야에서도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자에게 기술교육, 창업교육, 사후관리 및 자금지원 등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특성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특별한 사업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 준비 공간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Gartner & Vesper, 1994). 공공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 되어있다면 창업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창업에 필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창농정책과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중요성을 선행연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창농지원

제도로써 창농정책이 필요하고 이것은 개인이 준비하고 있는 네트워크와는 다른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창업역량을 증진시켜 창업을 촉진시키며, 창업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과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 하여 창업에 대한 위성을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선, 2015).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정책으로서 창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 준비단계, 실행단계, 지속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남정인, 2013). 이현숙(2004)의 연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이 창업가정신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andberg & Hoffer(1987)는 창업을 시작하기전 창업교육이 창업의지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창농정책이 청년 농업인의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축적된 지식 및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창업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서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을 주고 창업을 촉진시키며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김영선, 201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창업 업종과 각 지역 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창업자들의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반응 또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박지선, 2016). 따라서 창농정책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4 창업의도

잠재적인 창업자가 미래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업의도라고 정의하였다(Crant, 1996). 개인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시사·강성일(2007)은 “개인의 특성요인은 창업자의 행동을 자극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이며 이러한 요인은 창업의도를 더욱 높인다”고 하였다. 창업의도와 창업환경을 연구한 윤방섭(2004)은 “창업의도는 창업환경의 우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창업환경이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재무적, 행정적, 시장상황)이면 창업의도는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창업의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잠재적인 기업가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는 창업자의 성향과 창업의도의 차이에서 구분되고 넓은 의미에서 잠재적인 기업가는 자영업을 원하는 모든 사

람을 포괄한다(Lengyel, 2012). 창업의도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으로 계획된 행동에 기반하여 창업의도를 설명하기도 한다(Ajzen, 1991). 그리고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인식한 뒤 의도적인 계획을 세우는 창업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Shane & Venkataraman, 2000). 창업의도는 잠재적인 창업가가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가능성 또는 의지가 바로 창업의도라 할 수 있다(신하성, 2018). 창업의도와 창업의 관계에 대해서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고, 의도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한다(Ajzen, 1975). 그래서 창업은 계획된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도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전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신하성, 2018).

III.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실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예정자자들에게 어떤 요인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실증연구를 실시했으며, 이전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실증 연구를 통해 각각의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잠재적 창업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에 대하여 가지는 창업의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개인적 특성과 외부적요인, 정책적 요인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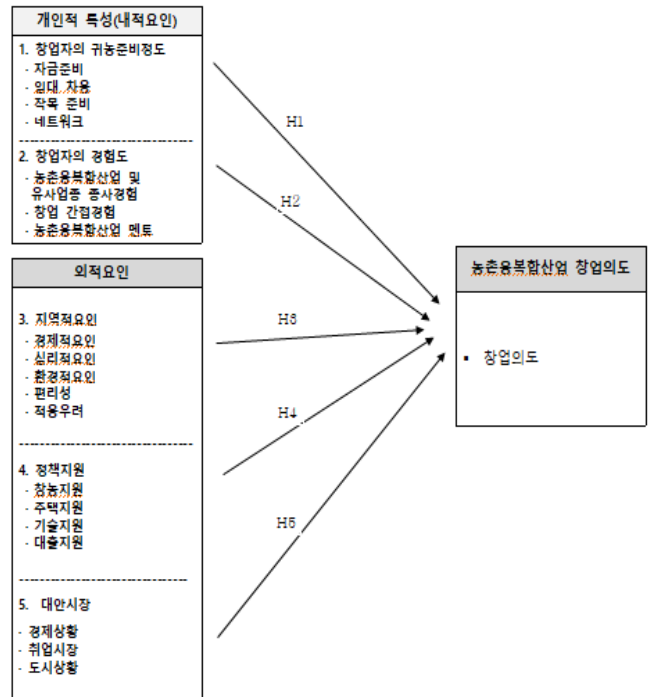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개인적 요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외부적 요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정책적 요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대안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1>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및 다수준 분석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실증 연구를 통해 각각의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인들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2020년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예정자 및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교육 수료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있는 잠재적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지역과 농촌융복합산업업권 분야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예비창업자로 예견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행사 참가자와 농업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김상균(2012). 중고령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인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정섭(2009).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송미령·성주인(2006). 도시민의 농촌지향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2006농업전망.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하(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지*, 25(3), 139-153.
- 이희찬·김현(2006).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3.
- 정철영(1999). 농업인력의 육성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31(2), 111-137.
- Aj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